

면접고사문제 <연극(연출·스텝)>

[지정대본]

출 제 문 제

아래의 대본을 분석하여 작품을 공연화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시오

[문제 출처]

- ▷ 작 가 : 프리드리히 뉘렌마트
- ▷ 작 품 명 : 노부인의 방문

<문 제>

현대. 소도시 쾰렌의 기차역

평음을 내며 급행열차 한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간다.

[시민1] 구드룬 호네, 함부르크-나폴리 구간.

[시민2] 11시 27분엔 롤란트 호가 지나갈 거야, 베니스-스톡홀름 구간이지.

[시민3]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재미는 지나가는 기차 구경 뿐이군.

[시민4] 5년 전만 해도 구드룬 호, 롤란트 호가 다 이 쾰렌역에 쏘았는데. 외교관 호랑 로렐라이 호까지 이름 있는 급행열차는 다 쏘지.

[시민1]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차들이었지.

[시민2] 이젠 완행도 안 서. 카피젠에서 오는 거랑 칼버 시에서 오는 열차가 고작이지.

[시민3] 다 끝장난 거야.

[시민4] 바그너 공장도 망하고.

[시민1] 보크만사는 도산했고.

[시민2] 행복성공 제련공장도 문을 닫았고.

[시민3] 실업연금에 매달려 사는 신세야.

[시민4] 무료급식으로 연명하는 인생이지.

[시민1] 인생?

[시민2] 힘들게 버티다가...

[시민3] 뺄는 거지...

[시민4] 온 도시가...

출 제 문 제

궤음을 내며 급행열차 한대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간다.

[시민4] 외교관 호야

[시민3] 한 땀 여기도 문화도시였는데

[시민2] 이 나라 최상급 도시였지.

[시민1] 유럽 최상급이었어.

[시민4] 괴테가 황금사도 호텔에서 묵었었어.

[시민3] 브람스가 여기서 4중주곡을 작곡했지.

[시민2] 슈바르츠가 화약을 발명한 것도 이 쾰렌 시야.

[화가] 뛰어난 성적으로 에콜 데 보자르(프랑스 국립 미술학교)를 나온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지, 이따위 플렌카드나 그리고 있다니...

[시민2] 그 억만장자 여사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. 칼버 시엔 병원을 세워 줬대.

[시민3] 카피젠엔 탁아소를 세우고, 베를린엔 기념 교회를 세웠는지?

[화가] 엉터리 자연주의 화가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초상화를 그리게 했대요.

[시민1] 돈이 넘치니까. 아르메니아엔 석유회사가 있고, 서부철도에, 북부엔 방송국이 있고, 방콕에 있는 환락가가 다 그 여자 거라는 말도 있어.

요란한 기차소리, 막 기차에서 뛰어내린 듯한 차장이 왼쪽에 나타난다.

[차장] (길게 목청을 빼면서) 귀-일-렌!

[시민1] 카피젠에서 온 완행이야.

승객 한 명이 열차에서 내려, 벤치에 앉은 남자들의 곁을 지나 “신사용”이라고 표지가 붙은 문 안으로 사라진다.

[시민2] 집행관이군.

[시민3] 시청이 압류된다면서?

[시민4] 정치적으로도 끝장난 거지.

[역장] (신호봉 들고) 출발!

시내 쪽에서 시장, 교장, 신부, 60대 중반 가량의 남자 일이 등장한다.

[시장] 칼버 시에서 오는 1시 13분 열차로 도착하실 겁니다.

[교장] 혼성 합창단이 환영가를 준비 중입니다. 청소년합창단도 함께요.

[신부] 화재비상용 종을 울리죠. 소방서 종은 아직 저당 잡히지 않았으니까요.

[시장] 광장에선 시립 관현악단이 연주하고, 체조 연맹은 여사께 경의를 표현하는 피라미드를 만들 거요. 식사는 황금사도 호텔에서 진행하죠. 저녁 무렵 대성당과 시청에 조명을 밝히면 좋겠지만, 유감스럽게도 시 재정상 불가능합니다.

[집행관] (공중화장실에서 나온다) 안녕하십니까, 시장님. 반갑습니다.

[시장] 집행관님, 무슨 일로 여길...?

[집행관] 시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.

출 제 문 제

[시장] 시청에서 찾아낼 거라곤 남아빠진 타자기 한 대가 전부일 거요.

[집행관] 켈렌시 향토 박물관을 잇고 계시군요.

[시장] 3년 전에 이미 미국에 팔렸소. 세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 시 금고도 텅 비었고.

[집행관] 그건 조사해 봐야 알 일이죠. 온 나라가 발전 중인데 행복성공 제련공장을 가진 켈렌이 파산이라뇨?

[시장] 우리도 모를 경제의 불가사의요.

[시민1] 프리메이슨 조직의 음모야.

[시민2] 유대인 놈들의 농간이지.

[시민3] 고위급 금융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라고.

[시민4] 좌파 빨갱이 놈들 짓이 틀림없다니까.

[집행관] 저당잡을 거야 뭐든 있겠죠. 제 눈은 매 같으니까요. 그럼 전 시청 금고나 살펴러 가보죠. **(퇴장)**

[시장] 여사가 다녀간 뒤 보다는 지금 털리는 게 낫지.

화가가 완성한 플래카드(“어서 와요, 클레리”)를 시장에게 보여준다.

[일] 안 됩니다, 시장님. 이걸 표현이 너무 사적이에요. “환영, 클레어 짜하나시안 여사” 정도가 적당합니다.

[시민1] 클레리 아니야?

[시민2] 맞아, 클레리 배쉬.

[시민3] 여기서 컸고.

[시민4] 아버지가 목수고.

[화가] 그럼 이 뒷면에 간단히 “환영, 클레어 짜하나시안 여사” 라고 쓰죠. 그랬다가 여사님께서 감동받는다 싶으면 돌려서 앞면도 보여 드리면 되니까요.

급행열차 한대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간다.

[시민2] 증권업자 호야, 취리히 - 함부르크 노선.

[시민3] 정확해. 저 열차에 시계를 맞출 수도 있다니까.

[시민4] 흥, 아직도 시계 가진 사람이 있나?

[시장] 여러분! 여사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.

[신부] 신을 제외하면 말이죠.

[시장] 네, 신을 제외하곤 말이죠.

[교장] 신께서 돈을 주진 않으시니까요.

[화가] 신은 우릴 잊었어요.

시민 4, 침을 뱉는다

[시장] 일씨, 선생이 여사님과 친한 사이였으니, 모든 게...선생께 달려 있습니다.

[일] 알고 있습니다.

[교장] 탁아소 정도론 도움이 안돼요.

출 제 문 제

[일] 기백만은 내놓도록 해야겠죠.

[시장] 기백만...! 친애하는 일 선생, 선생은 오래전부터 이 귤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셨소. 난 내년 봄이면 물러나요. 야당과도 이미 접촉을 끝냈어요. 우린 당신을 차기 시장으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
[일] 이런, 시장님.

[교사] 그 사실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.

[일] 본론으로 돌아가시죠, 여러분. 전 먼저 클라라에게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려 합니다.

[신부] 신중하게, 분위길 잘 살피면서요.

[일] 물론 현명하게 처신해야겠죠, 마음을 읽어가면서요. 하지만 역에서 마중하는 일부터 잘못 되면 전부 틀어져 버릴 수 있어요. 시립 관악단과 혼성 합창단 정도론 충분치 않습니다.

[시장] 일씨의 말이 옳아요. 도착하는 순간이 중요하죠. 짜하나시안 여사는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온 겁니다! 고향을 느끼고 익숙한 얼굴들을 보면서 옛정이 떠오르게 만들어야죠. 물론 나도 지금처럼 셔츠 바람으로 서 있진 않을 거요. 검은 예복에 모자도 갖추고, 옆엔 아내가 서고, 이 앞으론 두 손녀에게 흰 드레스를 입혀 장미꽃을 들게 할 겁니다. 제발 모든 게 제때 제대로만 된다면 좋겠는데...